

지나온 궤적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연다

글 박종홍 (주)청구 대표이사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일이나 하찮은 선택이란 없다. 삶에서 사소한 일이 없는 이유는 매순간 마주치게 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삶의 방향과 총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5년간 몸담았던 금융계를 떠나 건설업계 CEO로 새 출발을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새겼던 다짐의 말이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대중, 적당히 틀 버리고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통하는 원칙이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필자가 1981년 한일은행에서 인생의 첫 등지를 트 이후 주식회사 청구의 CEO가 된 오늘까지의 신념이 돼버렸다. 지난 세월 동안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는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들이 사람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 만큼 얼마나 여러 번 판단의 기로에 섰는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이 어려우면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애원도 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토록 치열하게 고심했던 순간의 선택들을 지금에 와서 돌아켜보면 후회와 기쁨이 교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궤적이 오늘의 판단에 대한 훌륭한 스승임에는 틀림이 없다.

필자의 사무실에는 각 건설사의 10주년을 기념하는 발간사가 준비하게 꽃혀 있다. 청구는 1993년

20년사 발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간사가 없다. 아마 정상 기업으로 계속 존재했다면 30년사를 발간했을 터이고 10년간의 선택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었을 텐데 읽으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30년사가 발간됐다면 이 자리에 필자가 없을 것이지만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올해 2월 전 직원과 함께 33주년 창사기념을 위해 태백산 정상에 올라 7~8년간 법정관리라는 굴레에서 신음하던 직원들의 울분에 찬 기합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청구가 그려갈 새로운 미래에 대해 무지개를 떠올렸다.

비가 그치고 난 후 먼 허공에 아름답게, 어느 색깔 하나 홀로 튀지 않고 골고루 제 빛을 발하는 무지개. 비바람이 없었더라면 과연 무지개는 저렇듯 훌륭한 빛깔을 빛낼 수 있었을까?

필자에게는 마흔이 훌쩍 넘어 얻은 늦둥이 딸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잠이 올라치면 재워달라며 내 손을 잡아온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며 보챈다. 그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호랑이 어찌구 저찌구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고난을 극복하고 어렵게 성공한 CEO가 된 기업가가 아닌 그저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렇고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데도 호기심 어린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잠드는 어린 딸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 필자는 오늘도 청구의 지나온 궤적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한다. 과거 청구가 짓는 아파트는 아파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하나를 위해 천을 버린다'는 기업 이념이 청구만의 독창적인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선호도 1위, 청약률 1위의 아파트로 그 명성을 인정받았다.

실내 분수대 설치, 주부 모니터 제도 도입, 단지 내 음악회 개최, 입주 전 고객관리 등 최근에 와서야 대기업 건설 회사들이 부르짖는 아파트 커뮤니티, BS(Before Service) 시스템을 청구는 이미 10년 전에 실현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주거문화에 있어서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통찰력을 가진 기업이 바로 청구였다. 이처럼 많은 화제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었지만 지난 1997년 IMF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맞게 되었고, 법정관리를 거치며 점차 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3월 M&A를 통해 화인 캐피탈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청구는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작지만 위대한 새 출발을 시작했다. 조직 구성과 제반 규정도 새로 정비했으며 브랜드명도 과거 청구가 지녔던 기업 이미지를 승계하고 집다운 집을 지어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벤(ZIVEN- '집에는' 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순수 우리말)이라고 정했다.

최근 건설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건설업계의 춘추전국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브랜드 수만 200여 개가 넘는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 업체와 지방에 근거지를 둔 중소형 업체 간의 영역 싸움이 치열하다. 여기에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은 건설사들의 운신 폭을 제한하고 있다. 건설업 위기설, 부도대란 등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자주 들려온다. 8년만에 재기를 노리는 청구의 입장에서 좋은 상황이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청구' 라는 이름이 명불허전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법이다. 지난 수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존심과 인내로 버텨온 100여 명의 직원들과 청구의 재기를 기다리는 전국의 골수 팬들의 응원이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구에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본받을 만한 자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이 자산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다루며, 다시 꽃피울 것이다.

오늘의 역경과 난관이라는 돌을 극복하면 내일은 반드시 그것이 황금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잠시 멈춰 있었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 힘차게 출발해야겠다. 지나온 궤적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펼쳐나갈 것이다.

尙有十二隻微臣不死(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나 남았고, 미천한 신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선조에게 올린 이순신 장군의 출사표를 떠올려본다. ☺



박종홍 (주)청구 대표이사